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에 對한 研究

이윤천·고승욱·서대선·김명수·정현영*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Lily disease, Malaria Syndrome characterized by ulceration, and Poision of Yin-Yang' in Keumkyueyorak

Yoon-Cheon Lee·Seung-Wook Go·Dae-sun Seo·Myung Soo Kim·Hun-Young Jung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Lily disease is applicable to psychoneurosis and characteristic symptoms of this disease are unstable mental, bitter taste, dark urine, and indistinctive and rapid pulse. Lily disease is treated by using Lily Bulb and Rehmannia Decoction, if it has thirsty, it is treated by Trichosanthes Fruit and Oyster Shell medicinal powder, in case of fever, treated by Lily Bulb and Talcum medicinal powder, if it is caused by hyperhidrosis, treated by Lily Bulb and Wind-weed Rhizome Decoction, if it is caused by using purgation excessively, treated by Talcum and Red Ochre Decoction and if it is caused by using emetic therapy excessively, treated by Lily Bulb and Egg Decoction.

Malaria Syndrome characterized by ulceration is caused by hydropyretic pathogen and it makes eyes red and ulcers at the throat, genitals, and the anus. It is applicable to syphilitic neural disease of Behcet's Syndrome. If it attacks upper part of body, it is treated by Licorice Decoction for Purging Stomach-fire and if it attacks lower part of body, treated by Lightyellow Sophora Root Decoction. If it attacks the anus, treated by smoke produced by burning orpiment, if affected part of body is jammed with pus, treated by Res Bean and Chinese Angelica Root medicinal powder.

Yin-and-Yang poison is divided into Yin poison and Yang poison. it is a kind of acute fever caused by epidemic poison and makes symptoms like macule and sorethroat. It is applicable to the part of disease caused by virus. It is treated by using Buybane rhizome and Turtle Shell Decoction.

I. 序 論

『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은百合病·狐惑·陰陽毒의辨證과治療를논술하였다.세가지가 비록 각각의特徵이 있으나發病이 모두外感熱病과 관련이 있고 또한症狀이 서로 비슷한 점이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jikjae@wonkwang.ac.kr, Tel : 063-850-6808

있으므로 한편으로 습하였다.)¹⁾

百合病은 精神이 恍惚하고 安定되지 않은 것으로서 口苦·小便赤·脈微數이 특징이다. 原因은 傷寒熱病 뒤에 餘熱이 끝나지 않아서 邪熱이 心肺의 陰液을 소모시켜서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뜻한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鬱結되어 火가 되어 心肺의 陰을 손상시켜 발생하기도 하여 葉橘泉²⁾은 病後의 神經精神衰弱으로 보았다.

狐惑은 濕熱毒이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症狀은 咽喉과 前後의 二陰이 潰爛되며 目赤이 특징이며, 咽喉에 발생하는 것을 '惑', 前後二陰에 발생하는 것을 '狐'³⁾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葉橘泉⁴⁾은 梅毒性神經病의 種類로, 李⁵⁾는 Behcet's Syndrome과 매우 類似한 것으로 보았다.

陰陽毒은 陽毒과 陰毒으로 구분하고 疫毒이 血分に 침범하여 일어나며 發斑과 咽喉痛이 주된 특징으로서 急性熱病의 범주에 속한다.

본 편의 내용은 『脈經』·『千金要方』·『外臺備要』·『諸病源候論』 등 여러 醫書에 인용하고 있어 後代의 醫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百合病은 鬱證·不寐·臟躁와 類似하기 때문에 臨床에서 이를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誤治의 우려가 있고, 狐惑病은 현대의학의 Behcet's Syndrome과 유사한데 현대의학에서도 그 원인과 발병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은 難治病이나 「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이 百合病·狐惑病·陰陽毒에 대하여 診斷과 治療에 도움이 되기에 中國에서는 『金匱要略』에 대한 文獻·實驗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國內에서는 蔡⁶⁾가 原文의 懸吐와 註

釋을 모아둔 연구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校勘과 諸家의 註釋을 考察함으로써 原文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本篇에 나오는 方이 현재 臨床에서 活用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세 病證의 診斷과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본 논문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結論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1. 原文은 내용에 따라 3章으로 나누고 章名을 달았으며, 條文의 번호와 題目을 달았다.
2. 原文은 宋祠部郎中 林億 등이 校正하고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⁷⁾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容하였다.
3. 懸吐는 蔡⁸⁾의 『金匱要略精解』를 準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표 1】과 같다.
5. 본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표 2】와 같고, 註釋의 內容은 懸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표 1】校勘한 文獻 및 略稱

	書名	編著者	略稱	備考
1	金匱要略方論	俞樞	俞本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金匱要略直解	沈明宗	直解	
3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4	外臺秘要	王燾	外臺	
5	諸病源候論	巢元方	病源	
6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7	脈經	王叔和	脈經	
8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魏本	
9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10	金匱要略淺註補正	唐宗海	補正	
11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12	東醫寶鑑	許俊	寶鑑	

- 1)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19.
- 2) 中西病名對照表: 葉橘泉, 千頃堂書局, 上海, 1955. p. 19.
- 3) 尤怡: 蝕于喉爲惑 ... 蝕于陰爲狐
- 4) 中西病名對照表: 葉橘泉, 千頃堂書局, 上海, 1955. p. 19.
- 5) 金匱要略: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 104.
- 6)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 7)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표 2】 選注書目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直解	程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廣注	李炆	
7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8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9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10	金匱要略論注	徐彬	
1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Ⅲ. 研究內容

第 1章 百合病

第 1條 百合病의 病機·症狀 및 預候

【原文】

論曰 百合病者는 百脈이 一宗⁽¹⁾ 하야 悉⁽²⁾ 致其病也라 意欲食⁽³⁾ 이로대 復不能食⁽⁴⁾ 하고 常默默⁽⁵⁾ 하야 欲臥不能臥⁽⁶⁾ 하고 欲行不能行⁽⁷⁾ 하야 欲飲食⁽⁸⁾ 호대 或有美時⁽⁹⁾ 하고 或有不用聞⁽¹⁰⁾ 食臭⁽¹¹⁾ 時⁽¹²⁾ 하니 如寒無寒⁽¹³⁾ 하고 如熱無熱⁽¹⁴⁾ 하니 口苦 小便赤⁽¹⁵⁾ 하야 諸藥이 不能治⁽¹⁶⁾ 하고 得藥則劇⁽¹⁷⁾ 吐利⁽¹⁸⁾ 하야 如有神靈者⁽¹⁹⁾ 하니 身形如和⁽²⁰⁾ 나 其脈微⁽²¹⁾ 數⁽²²⁾ 이라 每溺時頭痛者는 六十日乃愈⁽²³⁾ 하고 若溺⁽²⁴⁾ 時頭不痛 漸然⁽²⁵⁾ 者는 四十日愈⁽²⁶⁾ 하고 若溺快然⁽²⁷⁾ 라고 但頭眩者는 二十日愈⁽²⁸⁾ 라 其證이 或未病而預見⁽²⁹⁾ 하고 或病四五日而出⁽³⁰⁾ 하니 或病二十日 或一月에 微見者⁽³¹⁾ 하니 各隨證治⁽³²⁾ 라

【校勘】

- 1) 默默: 『愈本』, 『醫統』 및 『補正』에는 “默然”으로 되어 있다.

- 2) 欲飲食: 『醫統』에는 “飲食”으로 되어 있다.
 3) 或有不用聞食臭時: 『尤本』에는 “或有不欲聞食臭時”로 되어 있다.
 4) 若溺快然: 『魏本』에는 “若溺快然”으로 되어 있다.
 5) 微見者: 『病源·傷寒百合候』에는 “復見”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百脈一宗: ‘百脈’은 모든 脈을, ‘一宗’은 “함께, 모두”의 뜻이니, “百脈一宗”은 全身의 모든 經脈이 함께 病든 것을 말한다.
 (2) 悉: 詳盡, 다할 실
 (3) 默默(묵묵): 입을 다물고 말을 아니하는 모양.
 (4) 美: 甘也, 맛있을 미
 (5) 聞: 嗅香, 향기맡을 문
 (6) 臭: 凡氣之總名, 냄새 취
 (7) 劇: 甚也, 심할 극
 (8) 如有神靈者: 百合病 환자가 정신상태가恍惚하고 不安定한 症狀을 形容한 것인데 마치 神靈이 造化를 부려서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다.⁹⁾
 (9) 身形如和: 和는 和順·安和의 뜻으로서 無病의 뜻이다. 이는 환자가 外形上 뚜렷한 病態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¹⁰⁾
 (10) 微: 微脈, 매우 細하면서 柔軟한 것이 浮沈에 다르지 않는 脈.¹¹⁾
 (11) 數: 數脈, 正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6회 이상 搏動하는 脈.¹²⁾
 (12) 溺: 小便, 오줌 요

9) 李克光: 形容百合病人神志恍惚·精神不定的症狀이 好像有神靈作崇似的하야 捉摸不定이라

10) 陳紀藩: 和는 和順·安和니 引申爲無病이라 此는 言患者看上去似無明顯病態라

11) 成百葦: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p. 51.

12) 上揭書 p. 99.

- (13) 淅然(석연): 바람을 싫어하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형용한다.¹³⁾ (*淅: 人體微微戰慄)
- (14) 快然(쾌연): 상쾌한 모양.

【國譯】

論에 말하길, 百合病은 人體의 모든 脈이 함께 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음식을 먹고자 하나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항상 입을 다물고 말을 아니하며; 잠을 자려고 하나 자지 못하고 움직이려고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飲食을 먹고자 하나 어떤 때는 음식을 맛있게 느끼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음식냄새를 맡을 수 없는 때도 있으며; 惡寒이 있는 것 같으나 惡寒이 없고 發熱이 있는 것 같으나 發熱이 없으며; 口苦하고 小便赤하여 온갖 약으로 治療할 수 없고 藥을 服用하면 심하게 嘔吐와 泄瀉를 하여서 마치 귀신이 造化를 부리는 듯 하며 걸으려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듯하지만 脈은 微數하다. 小便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六十日이던 낮고; 만약 小便을 볼 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오싹오싹 추워하는 사람은 四十日이던 낮고; 만약 小便은 시원하게 보는데 단지 머리만 어지러운 사람은 二十日이던 낮는다. 以上の 症狀이 아직 發病하지 않았는데 미리 나타나기도 하고 或은 發病된지 四日이나 五日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며 或은 發病된지 二十日 또는 一月만에 약간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각각 그 病證에 따라서 치료한다.

【考察】

‘百合’이란 病名의 由來에 관하여 諸家의 주장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病機로써 命名한 것으로서, 原文에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라고 하였듯이 人體의 百脈은 같은 하나의 根源에서 나오니 根源이 病들면 百脈이 모두 병들게 되므로 百合病이라 하였다. 둘째, 主藥으

로 命名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魏荔澗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 “百合病에 百合을 主藥으로 삼았고 藥名으로써 病을 命名하였다.”¹⁴⁾고 하여, 百合이 百合病을 치료하는 주된 藥物이기 때문에 藥名으로써 病名을 삼은 경우이다. 셋째, 病因으로써 命名한 것으로서, 日本人 飯田鼎은 『金匱要略方論考證』에 “百合을 按察해 보면 房室이 過度한 것을 말하니 그 原因을 취하여 病을 命名한 것이다. 藥의 이름이 百合인 것은 우연일 뿐이다.”¹⁵⁾고 하여 百合病은 곧 房室이 過度하여 생긴 것으로 ‘百合’ 두 글자는 藥物인百合의 이름이 아니라 房室이 過度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陳¹⁶⁾은 두 번째의 관점은 확실히 傍證할 만한 점이 있는데 가령 仲景이 『傷寒論』 중에 “桂枝證”, “柴胡證” 등처럼 方藥으로 命名한 것이다. 첫 번째의 관점 역시 이치가 없지는 않으나 원문의 “...者 ...也”의 문장형식으로 보면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뒤의 “百脈一宗 悉致其病也”는 앞의 百合病을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百合病은 곧 百脈이 모두 병든 질환이다. 文章形式이나 病機로 보면 마를 만하다. 위에서 서술한 방법은 각각 이치가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다만 세 번째의 방법은 단지 地黃의 효과에 따라서 百合病의 病因·病名을 밝힌 것은 牽強附會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百合病의 原因을 『金匱要略』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百合病의 原因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傷寒病後에 생긴 것으로서 孫思邈은 『外臺秘要』에 “모두 傷寒虛勞로 因하여 大病이 끝난 뒤에 平常으로 回復되지 않아 變하여 病이 된다.”¹⁷⁾고 하

14) 魏荔澗: 此百合病以百合爲主藥하고 而且以藥名病也 夫인저

15) 飯田鼎: 按컨대 百合은 乃房室過度之謂니 取其因以名其病이라 與其藥名百合者는 偶然耳라

16) 金匱要略: 陳紀藩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20.

17) 孫思邈: 皆因傷寒虛勞하야 大病已後不平和하야 變成斯病이라

13) 李克光: 形容怕風寒慄之意라

여 傷寒虛勞大病의 뒤에 인체의 正氣가 虛하고 營衛氣血이 失調되어 나머지 邪氣가 머물러 모든 脈이 調和되지 않고 변하여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情志所傷한 것으로서, 吳謙은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에 “或은 平素에 생각이 많이 끊이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或은 우연히 놀라고 의심이 일어나며 갑자기 어떤 境遇에 처하여서 形과 神이 모두 病이 되므로 이와 같은 證이 있게 된다.”¹⁸⁾고 하였다. 셋째, 誤治로 생긴 것으로서, 吳綏는 『重訂傷寒蘊要方脈藥性匯全』에 “무릇 傷寒을 發汗·吐·下한 뒤에 元氣가 虛勞하여 대개 이 證으로 변한다.”¹⁹⁾고 하였다. 넷째, 房勞로 생기는 것으로서, 日本人 飯田鼎은 『金匱要略方論考證』에 “무릇 百合病은 … 房勞가 過度한 것으로 생긴다.”²⁰⁾고 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說이 分분하지만 『千金方』, 『外臺秘要』, 『太平聖惠方』, 『類證活人書』, 『聖濟總錄』, 『普濟方』, 『證治準繩』과 같은 漢以後의 重要한 著作에 모두 百合病을 傷寒百合 또는 百合傷寒이라 하여 傷寒門類로 分類한 것을 보면 傷寒으로 발생하거나 傷寒 후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以上을 綜合해 보면, 百合病의 原因은 주로 傷寒外感熱病을 汗·吐·下하여 잘못 치료하거나 혹은 情志不遂와 房勞 등으로 인하여 人體의 營衛氣血이 虛損하게 되어 正常으로 回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百合病의 病機에 대하여 趙以德은 『金匱方論衍義』에 “무릇 脈은 血의 府이다. … 手心主에 귀납된다. 手心主는 血과 脈을 주재하니 만약 火가 넘치면 熱이 되고 熱이 쌓여 흠어지지 않으면 모이고 모이면 毒이 생겨서 血을 손상시키고 熱毒이 脈으로 흘러 들어가니 根本이 母氣의 淫邪로

인한 것이므로 百脈이 이를 따라 모두 病이 된다.”²¹⁾고 하여 心·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魏荔洞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 “百合病은 肺病이다. 肺는 氣를 主宰하니 肺가 病들면 氣가 病들고 氣가 病들면 脈이 병든다.”²²⁾고 하여 肺·氣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原文에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라고 밝혔듯이 百合病의 病機는 脈에 관련된 것이다. 脈과 관련하여 『素問·宣明五氣篇』에 “心主脈”이라 하였고, 『素問·經脈別論』에 “肺朝百脈”이라 하였으니 心은 血脈을 주재하고 肺는 百脈이 朝會하여 人體의 脈은 心·肺가 統括하므로 각종의 病因이 心·肺에 손상을 끼치면 百脈이 함께 병들기 때문에 百合病의 病機는 心과 肺 둘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程門雪은 “百合病은 熱이 肺陰을 손상시켜 腦髓에 영향을 미쳐 膀胱에 나타나는 것이다.”²³⁾고 하여 腦病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하여 陳紀藩은 百合病 환자의 몸은 자주 津虧血燥하고 元氣가 困乏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陰液滋潤·濡養機能의 不足은 氣의 각종 機能의 장애를 發生하여 氣血이 不和하게 되어 藏府經絡이 濡養되지 못하게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히 心이 받는 손상이 가장 크다. 心神은 全身의 각종 生理機能의 協助와 平衡에 영향을 주어 五臟六腑의 大主가 되며 “主不明則十二官危”하므로 心이 濡養을 받지 못하면 心神이 맑은 職分을 잃어 기타의 藏府와 經脈이 非正常이 되어 鬼神이 조화를 부리는 것과 같은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고²⁴⁾ 하였다

21) 趙以德: 蓋脈者는 血之府라 … 歸于手心主하고 手心主者는 主血主脈하니 若火淫則熱하고 熱蓄不散則積하고 積則毒生而傷其血하고 熱毒之血流于脈하야 本因母氣之淫邪하니 是故로 百脈一宗하야 悉致其病也라

22) 魏荔洞: 百合病者는 肺病也라 肺主氣하니 肺病則氣病하고 氣病則脈病이라

23) 程門雪: 百合一病은 熱傷肺陰하야 延及腦髓하고 徵于膀胱也라

24) 金匱要略: 陳紀藩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p. 120~121.

18) 吳謙: 或平素多思不斷하고 情志不遂하며 或偶觸驚疑하며 卒臨景遇하야 因而形神俱病 故로 有如是之現證也라

19) 吳綏: 大抵傷寒汗吐下之後에 元氣虛勞하야 多變此證이라

20) 飯田鼎: 蓋百合病者는 … 房勞過度之所致라

나 참고할 만하다.

百合病의 症狀에 대하여 曹家達은 『金匱要略發微』에 “肺陰이 濡養하지 않으면 濁氣는 下降하지 않고 清氣는 上升하지 못하여 모든 藏의 氣가 實하여 갑자기 停滯하게 되니 이리므로 胃氣가 갑자기 停滯되면 밥을 먹으려고 하나 먹을 수 없고; 意慾이 떨어져 모든 일을 그만두므로 항상 말이 없이 沈默하며; 또 肺陰이 下降하지 않고 膈火가 上逆하여 이로 因하여 病이 煩躁가 되므로 눕고자 하나 누울 수 없으며 움직이려고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肺陰은 비록 損傷되었으나 胃氣는 여전히 있으므로 飲食이 맛있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筋脈이 懈弛하여 動作할 수 없고 中脘이 쉽게 停滯되므로 간혹, 음식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때도 있으며; 肺는 皮毛를 주재하니 肺陰이 傷하면 衛陽이 外를 保衛하지 못하여 약간 惡風을 느끼게 되므로 추운 것 같으나 寒이 없으며; 津液이 皮毛를 濡養하지 못하여 때로 乾燥하고 통스러우므로 熱이 있는 것 같으나 熱은 없으며; 口苦는 肺陰이 中脘을 滋潤하지 못하여 膈胃가 燥한 것이며; 小便赤은 水의 上源이 不足하여 下焦에 熱이 鬱한 것이다.”²⁵⁾고 하였다. 百合病의 症狀을 尤怡는 『金匱要略心典』에 “모두 확실하지 않게 오는 것이라서 믿을 만한 징조는 아니나 오직 口苦·小便赤·脈微數만이 곧 그 恒常된 徵候이다.”²⁶⁾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熱邪가 흩어져서 經脈에 하나로 모이지 않아 邪氣가 游走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病 또한 去來가 일정치 않

25) 曹家達: 肺陰不濡 則濁氣不降하고 清氣不升하여 諸藏之氣가 實爲滯滯하니 是故로 胃氣頓滯則欲食而不能食이오 意興蕭索이면 百事俱廢 故로 常默然이오 且肺陰不降하고 膈火上逆하여 因病煩躁 故로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이오 肺陰雖傷이나 胃氣尙存 故로 飲食或有美時하며 然以筋脈懈弛하여 不能動作하고 中脘易於停頓 故로 或有不欲聞食與時오 肺主皮毛하니 肺陰傷則衛陽不能衛外하여 微覺惡風 故로 似寒無寒하며 津液不濡皮毛면 時苦乾燥 故로 如熱無熱이오 口苦者는 肺陰不能滋潤中脘而膈胃燥也오 小便赤者는 水之上源不足而下焦熱鬱也라

26) 尤怡: 全是恍惚去來하여 不可爲憑之象이니 惟口苦小便赤 脈微數 則其常也라

다.”²⁷⁾고 하였다. 그러므로 原文에 “如有神靈者”라 하여 百合病의 症狀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李는 증상으로 볼 때 百合病은 현대의 精神神經症(psychoneurosis)에 해당된다²⁸⁾고 하였다.

百合病의 症狀은 鬱證·不寐·臟躁와 유사하나 같지는 않다. 鬱證에 胸痛·脹痛·噯氣·口苦·口乾·便秘·尿赤·煩躁易怒·脚及脹痛·噯氣頻頻 등의 증상이 있어서 百合病과 유사하나 百合病이 陰虛內熱로 인한 것인 반면에 鬱證은 實火로 인한 것이므로 구별이 있다.

不寐는 종종 정상적으로 睡眠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며 혹은 자다가 쉽게 깨는 증상으로서 百合病의 “欲臥不能臥”와 유사하나 不寐는 百合病의 不寐 이외의 기타 症狀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다.

臟躁의 주요 특징은 “善悲欲哭”인데 百合病에서 나타나는 口苦·小便赤 등과 같은 증상이 없다.²⁹⁾

百合病의 預後를 小便과 연관시켰는데 소변볼 때마다 頭痛이 있으면 60일이 지나면 낫고, 頭痛이 있지는 않으나 오싹오싹하면 40일이 지나면 낫고, 소변은 시원하게 보는데 단지 머리만 어지러우면 20일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였다. 唐宗海가 “症狀의 淺深을 辨別함에 이르러서는 첫째 頭痛이라 하고 둘째 頭漸漸然이라 하고 셋째 頭眩이라 하였고, 陳修園의 『金匱要略淺註』에는 太陽經으로 論하였으나 그러나 原文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腦髓를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므로 頭痛이 있는 것은 病이 深部に 있고 頭痛이 없는 것은 病이 淺部に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太陽經 頭痛은 表部に 있는 것이지 深部に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무릇 肺의 氣管은 위로 腦에 들어가 鼻

27) 尤怡: 熱邪散漫하고 未統於經하여 其氣游走無定 故로 其病亦去來無定이라

28) 金匱要略: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 88.

29) 中醫辭海: 上: 吳大眞 總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p. 1132.

에 到達하여 가장 곤장 다르나 腦髓에 依據하여 病의 淺深을 辨別하였다.”³⁰⁾고 하였듯이 대부분의 註釋家들은 肺·膀胱과 腦의 측면으로써 理解하였으며, 曹家達은 “소변볼 때 頭痛이 있는 것은 水液이 아래로 새어나가고 鬱結된 熱이 腦로 上衝된 것이고, 衝激이 甚하지 않으면 太陽穴의 經脈이 躁動하여 단지 漸漸然한 것만 나타나고 아픈 것 같으나 아프지 않고, 小便이 시원하게 나오나 단지 浮越된 陽이 위를 가려서 頭眩하면 그 病이 더욱 輕한 것이다.”³¹⁾고 하였으니 문장 가운데 六十一·四十二 등 의 日數는 단지 病情의 長短을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이에 拘碍될 필요가 없다.

第 2條 發汗으로 發生한 百合病의 治療

【原文】

百合病이 發汗後者는 百合知母湯主之¹⁾라

百合知母湯方

百合七枚擘¹⁾ 知母三兩²⁾切²⁾

右先以水洗³⁾百合하여 漬⁴⁾一宿⁵⁾ 當白沫出하니 去其水하고 更以泉水二升으로 煎⁶⁾取一升하여 去滓³⁾⁽⁷⁾하고 別以泉水二升으로 煎知母하여 取一升하여 去滓하고 後合和하여 煎取一升五合하여 分溫再服이라

【校勘】

1) 百合病 發汗後者 百合知母湯主之.: 『千金·卷十·百合第三』에는 “治百合病已經發汗之後 更發者 百合知母湯方”으로 되어 있다.

2) 三兩: 『寶鑑』에는 “一兩”으로 되어 있다.

30) 唐宗海: 至辨症之淺深하여는 一則曰頭痛이오 再則曰頭漸漸然이오 三則曰頭眩이라하고 淺註엔 就太陽經論이나 然이나 玩原文컨대 殆指腦髓而言이라 故로 痛者病深하고 不痛者病淺하니 故로 太陽之頭痛在表오 不得爲深也라 蓋肺之氣管은 上入腦而達於鼻路最直捷하니 據腦髓以辨病之淺深이라

31) 曹家達: 溺時頭痛者는 水液下洩하고 鬱熱上衝於腦也오 衝激不甚하면 則太陽穴經脈躁動但見漸漸然하고 似痛非痛이오 小便暢適이나 但有浮陽上冒而病頭眩하면 則其病更輕이라

3) 去滓: 『外臺·卷二』에는 “去滓 置之一處”로 되어 있다.

【註解】

(1) 擘: 藥物을 달이기 전에 우선 손끝으로 찢어내고, 藥味를 끓여서 나오기 쉽도록 하는 것. (*擘: 分擘, 나눌 벽)

(2) 切: 治劑이라고도 함. 藥材의 雜物을 除去하고, 藥物을 일정한 크기로 썰는 방법을 총괄하여 말한다. (*切: 割也, 벨 절)

(3) 洗: 물로 藥物의 表面에 붙어 있는 흙이나 그 외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으로, 藥물의 特性에 따라 有效成分에 影響을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씻어서 햇볕이나 60℃ 안팎의 건조실에서 빨리 말린다. (*洗: 滌也, 씻을 세)

(4) 漬: 泡와 같음. 藥물에 물을 서서히 스며들게 하여 軟하게 하면 藥性을 喪失시키지 않고 軟하게 하는 것. (*漬: 浸漬, 담글 지)

(5) 一宿(일숙): 하룻밤의 시간으로 즉 12시간 정도에 해당된다.

(6) 煎: 湯劑의 벌침으로 藥物을 물에 넣고 달이는 것. (*煎: 火去汁, 조릴 절)

(7) 滓: 澱也, 찌꺼기 계

【國譯】

잘못 發汗시켜 百合病이 發生한 경우에는 百合知母湯으로 主治한다.

百合知母湯方

百合 七枚조갠 것 知母 三兩썰은 것

위의 藥물을 먼저 물로 百合을 씻어서 하룻밤 동안 담가두면 白沫이 나오니 물을 따라내고 다시 藥물 二升으로 一升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별도로 藥물 二升으로 一升이 되도록 知母를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 뒤에 百合을 달인 것과 合하여 一升五合이 되도록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百合知母湯에 대하여 李炆은 百合의 氣味가 甘寒하고 心·肺 二經으로 들어가 心肺陰虛를 치료하고, 發汗시켜서 津液이 消亡된 것을 知母의 滋陰清熱하는 작용으로 百合病을 치료한다³²⁾고 하였다.

百合知母湯을 임상에 활용한 예로서 朱³³⁾는 本方에 牡丹皮·當歸·白芍藥·川楝子·甘草를 加味하여 聚證을, 甘麥大棗湯을 合方하여 嘈雜을, 安神定志丸을 合方하여 驚恐을 치료하였으며; 關³⁴⁾ 등은 人蔘溫膽湯을 合方하여 客忤瘳을 치료하였으며; 張³⁵⁾은 本方에 滑石·金銀花·連翹·白芍藥·香薷를 加味하여 히스테리 마비(hysterical paralysis)를 치료한 예를 발표하였다.

第 3條 瀉下하여 發生한 百合病의 治療

【原文】

百合病이 下之後者는 滑石代赭湯主之¹⁾라

滑石代赭湯方

百合七枚擘 滑石三兩 碎⁽¹⁾綿⁽²⁾裹⁽³⁾ 代赭石如彈子大⁽⁴⁾一枚 碎綿裹

右先以水洗百合하여 漬一宿하되 當白沫出하니 去其水하고 更以泉水二升으로 煎取一升하야 去滓⁽²⁾하고 別以⁽³⁾泉水二升으로 煎滑石代赭하야 取一升하야 去滓하고 後合利하야 重⁽⁵⁾煎取一升五合하야 分溫服⁽⁴⁾이라

【校勘】

32) 李炆: 百合은 氣味甘寒하고 入心肺二經이라 本草에 稱其有消心安神 保肺益氣之功이라하니 則以之治百合病이라 ... 但其熱在脈而不在皮毛하니 發汗則陰氣既虛하고 復亡津液하야 知母는 入肺經而滋陰清熱하야 以肺合皮毛하니 汗從皮毛中出則肺虛 故로 加知母以潤肺也라

33) 朱斌順: 百合知母湯治驗三則, 湖南醫學雜誌, 1983. vol3, p. 43.

34) 關信 等: 百合知母湯加味治驗介紹, 甘肅醫藥, 1984. vol3, p. 42.

35) 張河占: 重用百合治療癱瘓性病性癱瘓, 新疆中醫藥, 1986, vol3, p. 63.

1) 百合病 下之後者: 『千金·卷十』에는 “治百合病已經下之後更發者…”로, 『外臺·卷二』에는 “又下之已更發者 百合滑石代赭湯主之方”으로, 『寶鑑』에는 “治下後百合證”으로 되어 있다.

2) 去滓: 『外臺·卷二』에는 “去滓置一廂”으로 되어 있다.

3) 別以: 『外臺·卷二』에는 “又以”로 되어 있다.

4) 分溫服: 『外臺·卷二』에는 “分再服”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碎: 散也, 갈 썰

(2) 綿: 木綿, 무명 면

(3) 裹: 包也, 쌀 과

(4) 彈子大(탄자대): 알약 크기의 하나. 옛날 탄알 크기만한 것 또는 달걀 노른자위만한 것을 말한다. 벽오동씨 10개와 같으며,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20g으로 본다.

(5) 重: 再也, 거듭 중

【國譯】

瀉下시켜 百合病이 발생한 경우에는 滑石代赭湯으로 主治한다.

滑石代赭湯方

百合 七枚썩은 것 滑石 三兩갈아서 무명에 썬다. 代赭石彈子大 크기의 一枚를 잘게 갈아서 무명에 썬다.

위의 약물을 먼저 百合을 물로 씻어서 하룻밤 동안 담가두면 白沫이 나오니 물을 따라내고 다시 샘물 二升으로 一升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다. 별도로 샘물 二升到 滑石과 代赭石을 一升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百合을 달인 것과 合하여 다시 一升五合이 되도록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서 따뜻하게 服用한다.

【考察】

滑石代赭湯에 대하여 李炆은 百合은 性味が 甘

寒하고 心·肺 二經으로 들어가며 清心安神하고 保肺益氣하므로 清心潤肺하므로 百合病을 主治하고, 滑石과 代赭石으로 清熱하고 二便을 分利한다고36) 하였다.

滑石代赭湯方을 사용한 治驗例로는 『趙錫武醫療經驗』37)에 畏冷·胸悶·脘痛·腹痛을 治療한 例가 보고되었다.

第 4條 吐法을 써서 發生한 百合病의 治療

【原文】

百合病이 吐之後者는 用後方主之¹⁾라

百合鷄子湯方

百合七枚擘 鷄子黃一枚

右先以水洗百合하여 漬一宿하면 當白沫하니 出去其水하고 更以泉水二升으로 煎取一升하여 去滓하고 內¹⁾鷄子黃하여 攪勻²⁾하여 煎五分하여 溫服이라

【校勘】

- 1) 百合病 吐之後者 用後方主之: 『千金·卷十』에는 “治合病已經吐之後 更發者 百合鷄子湯方”으로, 『外臺·卷二』에는 “又吐之已更發者 百合鷄子湯主之方”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內: 入也, 들일 남
- (2) 攪勻(교균): 고루 잘 섞음.

【國譯】

吐法으로 잘못 치료하여 百合病이 發生한 경우에는 뒤의 處方으로 主治한다.

百合鷄子湯方

百合 七枚쪼갠 것 鷄子黃 一枚

먼저 물로 百合을 씻어서 하룻밤 동안 담가두면 白沫이 나오니 물을 따라내고 샘물 二升으로 一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鷄子黃을 넣고 고루 섞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때까지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考察】

百合鷄子湯에 대하여 李炆은 百合病을 主治하는 百合에 胃氣를 充養할 수 있는 鷄子黃을 加하여 사용하였다고38)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2·3·4條는 모두 百合病을 汗·吐·下하여 誤治한 뒤에 나타나는 비교적 輕微한 變症을 치료한 것으로서 本病을 爲主로 하고 變症을 겸해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百合을 主藥으로 삼았고, 샘물로 약을 달이고 또한 誤治를 救濟하는 藥品을 넣어서 變症에 맞게 한 것이다.39)

百合鷄子湯方을 이용한 臨床例로서는 肝昏睡(hepatic coma)를 치료한40) 例가 있다.

2·3·4條를 대부분 百合病을 汗·吐·下로써 誤治한 경우의 治療로 보았으나, 誤治로 인하여 나타나는 症狀에 대한 설명이 없고, 李炆이 “大病의 뒤에 아직 正常으로 완전히 回復되지 않았는데 調理를 잘하지 못하여 남은 證이 陽에 있는 것을 醫者가 도리어 瀉下시켜서 陰을 攻伐하고 남은 證이 陰에 있는 것을 醫師가 도리어 發汗시켜서 陽을 攻伐하면 이로써 百脈이 한가지로 각각 풀리지 못하고 다시 經絡의 傳하는 次序도 없으며 … 藥物이 들어가면 바로 吐하여 邪祟과 같기도 하니 治療는 百合으로 爲主하니 百脈을 잘 調和하기 때문이다. 發汗·吐法·瀉下를 하였는지를 구분하여 加減하며 陶氏柴胡百合湯을 쓴다.”41)고

36) 李炆: 熱在脈而不在府하니 下之則熱邪入裏하여 協熱遂利而下焦不固 故로 加滑石之分利者하여 泌水穀以分陰陽하고 代赭石之重澁者하여 鎮下焦而固虛脫이라

37) 中醫研究院西苑醫院: 趙錫武醫療經驗, 人民衛生出版社, 1980 vol4, p. 73.

38) 李炆: 吐則傷胃하고 鷄子黃은 純是血液所成이니 能養胃氣오 以病邪在脈하고 脈者血之府니 欲其入血分以和脈也라

39)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25.

40) 山西省中衣研究所肝病科: 中西醫結合治療肝硬變肝昏迷40例經驗小結, 新西醫學雜誌, 1974, vol2 p. 13.

하였듯이 傷寒病을 잘못 汗·吐·下하여 營衛氣血이 虛損하여 百合病이 발생되므로 汗·吐·下하였는지를 區分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醫部全錄·傷寒門』에 百合知母湯을 “發汗시킨 뒤의 百合證을 치료한다.(治汗後百合證)”⁴²⁾고 하였고, 滑石代赭湯을 “瀉下시킨 뒤의 百合證을 치료한다.(治下後百合證)”⁴³⁾고 하였고, 百合鷄子湯을 “吐法을 쓴 뒤의 百合病을 치료한다.(治吐後百合病)”⁴⁴⁾고 하였다. 따라서 2條는 發汗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에 發汗하여 誤治함으로써 발생된 百合病을, 3條는 下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에 下法을 써서 誤治함으로써 발생된 百合病을, 4條는 吐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에 吐法을 써서 誤治함으로써 발생된 百合病을 치료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第 5條 百合病의 正治

【原文】

百合病¹⁾이 不經吐下發汗²⁾이로대 病形如初者³⁾는 百合地黃湯主之라

百合地黃湯方

百合七枚擘 生地黃汁 一升

右先以水洗百合하여 漬一宿하면 當白沫出하니 去其水하고 更以泉水二升으로 煎取一升하여 去滓하고 內地黃汁하여 煎取一升五合하여 分溫再服이나 中病이면 勿更服이니 大便當如漆⁽¹⁾이라

【校勘】

41) 李挺: 病後에 未甚平復하고 失於調理하며 餘證의 在陽을 醫反下之하여 以攻陰하고 餘證의 在陰을 醫反汗之하여 以攻陽하여 以此로 百脈이 一宗하여 各不得解하고 無復經絡의 傳次하며 … 藥入即吐하여 有如邪祟하니 治以百合爲主니 以其能和百脈이라 分汗吐下後에 加減하며 及陶氏柴胡百合湯이라

42)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第七冊·諸疾下 傷寒門,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 2952.

43) 上揭書, p. 2952.

44) 上揭書, p. 2952.

1) 百合病: 『千金·卷十』에는 “治百合病始”로 되어 있다.

2) 不經吐下發汗: 『千金·卷十』에는 “不經發汗吐下”로, 『外臺·卷二』에는 “不吐不下不發汗”으로 되어 있다.

3) 病形如初者: 『外臺·卷二』에는 “病形如初”로 되어 있다.

【註釋】

(1) 大便當如漆: 漆은 黑色이니 大便色黑을 가리킨다.

【國譯】

百合病이 吐劑와 下劑와 發汗劑를 쓰지 않았는데도 病의 증상이 제 1條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百合地黃湯으로 主治한다.

百合地黃湯方

百合 七枚(조갰 것) 生地黃汁(一升)

위의 약물을 먼저 물로 百合을 씻어서 하룻밤 동안 담가두면 白沫이 나오니 물을 따라내고 샘물 二升으로 一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끼기를 버리고 地黃汁을 넣고서 一升五合이 되도록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病에 나오면 다시 服用하지 않는다. 이 藥을 服用하면 大便이 옷처럼 검게 배출된다.

【考察】

本條는 典型的인 百合病의 治療를 논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百合病의 病機는 주로 心肺陰虛內熱이므로 治法은 清養·滋陰이 원칙이 된다. 百合地黃湯은 潤養心肺와 涼血清熱과 益氣安神의 효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百合病을 正治하는 處方이 된다.⁴⁵⁾

百合地黃湯에 對하여 李炆은 “百合病을 汗·吐·下를 하지 않았으나 熱이 血脈 안에鬱結되어 分散되지 않는 것을 免할 수는 없다. 生地黃은 甘寒

45)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26.

하고 心經으로 들어가 養脈涼血하니 이른바 經脈을 濡潤하고 益血하며 脈을 回復하고 心을 疏通시키는 것이다.”⁴⁶⁾고 하였으니 百合病을 主治하는 百合과 養脈涼血하는 生地黃으로 百合病의 基本方을 삼았다. 陳은 “本方은 清·輕·平·潤의 특징을 갖고 있어 滋津血·益元氣할 수 있어 五藏의 元眞이 通暢하여 內熱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빼내어 失調된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임상에서 증명되었듯이 百合地黃湯은 이러한 病證의 類에 확실히 훌륭한 처방이다.”⁴⁷⁾고 하였다.

처방의 끝에 “病이 나오면 다시 服用하지 않는다.(中病勿更服)”고 한 것은 地黃의 성질이 寒潤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면 泄瀉를 할 수 있고, 또 처방 가운데 地黃汁을 매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난 뒤에 用量이 過多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⁴⁸⁾

“大便이 옷과 같다.(大便當如漆)”고 하였는데 이는 地黃汁을 복용한 뒤에 大便이 黑色을 띠 수 있으나 服藥을 멈추면 바로 消失된다. 이러한 것을 李炆은 “大便이 옷과 같이 검은면 瘀血이 흘러져 온몸으로 運行되고 쌓인 熱이 풀린 것이다.”⁴⁹⁾고 하여 瘀血과 쌓인 熱이 풀리는 것으로 보았다.

陶華의 『傷寒六書·殺車槌法·秘用三十七方就注三十七槌法』⁵⁰⁾에는 小柴胡湯에서 半夏를 빼고 知母·百合·陳皮를 加味한 柴胡百合湯을 제시하고, 渴症에는 天花粉을, 胸中煩躁에는 山梔子를, 약간의 頭痛있는 경우에는 羌活·川芎을, 嘔吐에는 薑汁·炒半夏를, 胸中飽悶에는 枳殼·桔梗을, 食復에는 枳實·黃連을, 食復이 甚重하고 大便實한 경우에는 大黃을, 胸中虛煩에는 竹茹·竹葉을, 病

이 조금 나은 뒤에 乾嘔하고 헛소리를 하고 精神을 잃고 呻吟하면서 不安한 경우에는 黃連·犀角을, 咳喘에는 杏仁을, 百合에는 麻黃·黃連을, 心中驚惕하여 血少한 경우에는 當歸·茯苓·遠志를, 虛汗에는 黃耆를, 脾倦에는 白朮을, 腹如雷鳴에는 煨生薑을, 勞復으로 熱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葶藶·烏梅·生艾汁을 加味하는 상세한 加減法을 밝혔는데 아래의 【표 3】과 같다. 또한 處方의 構成을 말하고 重量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藥을 사용할 때 醫師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任意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표 3】柴胡百合湯의 處方構成과 加減法

處方構成	柴胡 人參 黃芩 甘草 知母 百合 陳皮
加減法	渴 加天花粉; 胸中煩躁 加山梔; 有微頭疼 加羌活 川芎; 嘔吐 入薑汁 炒半夏; 胸中飽悶 加枳殼 桔梗; 食復者 加枳實 黃連, 甚重 大便實者 加大黃; 胸中虛煩 加竹茹 竹葉; 寢後乾嘔 錯語失神 呻吟 睡不安者 加黃連 犀角; 咳喘者 加杏仁; 百合 宜加麻·連; 心中驚惕 爲血少 加當歸 茯苓 遠志; 虛汗者 加黃耆; 脾倦 加白朮; 腹如雷鳴 加煨生薑; 勞復時熱不除 加葶藶 烏梅 生艾汁

百合地黃湯을 이용한 治驗例로는 白⁵¹⁾은 本方에 知母·麥門冬·龍骨·牡蠣·磁石·石菖蒲·茯神을 加味하여 更年期 擾鬱症을, 楊⁵²⁾은 酸棗仁·遠志·茯苓·龍骨·知母·鬱金·竹茹·甘草를 가미하여 輕症의 히스테리(hysterism)를, 陶⁵³⁾는 本方에 阿膠·茅根·黃芩·知母를 加味하여 鼻衄을, 田⁵⁴⁾ 丹參·地骨皮를 加味하여 經斷前後의 諸證을, 武⁵⁵⁾는 酸棗

46) 李炆: 百合病이 不經汗吐下나 未免熱鬱血脈中而不散이오 生地黃은 甘寒하고 入心經하여 能養脈涼血하니 所謂潤經益血 復脈通心也라

47)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26.

48)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26.

49) 李炆: 大便如漆 則瘀血行而積熱解矣라

50) 陶華: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134.

51) 白國生: 百合地黃湯加味治療更年期憂鬱症20例, 江蘇中醫, 1995, vol8, p. 13.

52) 楊鐘發: 加味百合地黃湯治療癒症45例, 陝西中醫, 1980, vol4, p. 19.

53) 陶必賢: 古方百合地黃湯·百合鷄子湯加味治療鼻衄의 臨床報告, 貴陽中醫學院學報, 1995년, vol3, p. 35.

54) 田榮華: 百合地黃湯加味治療經斷前後諸症167例, 中醫臨床與保健, 1992, vol2, p. 18.

55) 武明甫: 百合地黃湯治療夜遊症, 陝西中醫, 1986,

仁·知母·茯神·當歸·白芍藥·柏子仁·合歡花·梔子·桑椹子·甘草를 가미하여 夢遊病(somnambulism)을, 胡⁵⁶⁾는 麥門冬·酸棗仁·遠志를 加味하여 輕微한 腦機能 失調 綜合證을, 任⁵⁷⁾은 麥門冬·烏藥·五味子·苧蕪子를 加味하여 喘證을, 麥門冬·烏藥·丹參·赤芍藥을 加味하여 胸痺를 치료한 例를 報告하였다.

第 6條 百合病이 낫지 않고 渴症이 나타나는 경우의 치료

【原文】

百合病이 一月¹⁾不解하고 變成渴者는 百合洗方 主之라

百合洗方

右以百合一升을 以水一斗로 漬之一宿하고 以洗身하네 洗已면 食煮餅¹⁾호대 勿以鹽豉²⁾也라

【校勘】

1) 一月: 『千金·卷十』에는 “經月”로 되어 있다.

【註釋】

- (1) 煮餅(자병): 餅은 古代에는 밀가루 음식을 通稱한다.⁵⁸⁾
- (2) 鹽豉: 소금과 豆豉로서 煮餅을 먹을 때 맛을 내기 위한 것이다.⁵⁹⁾ 豆豉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말린 청국과 비슷한 식품이다.

【國譯】

百合病이 一個월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變하여 渴症이 나면 百合洗方으로 主治한다.

百合洗方

百合 一升을 물 一斗에 하룻밤 동안 담갔다

vol6, p. 172.

56) 胡義保: 百合地黃湯加味治愈輕微腦功能失調綜合徵, 四川中醫, 1989, vol10, p. 13.

57) 任美華: 加味百合地黃湯治愈二則, 湖南中醫雜誌, 1990, vol6, p. 31.

58) 陳紀藩: 餅은 古代麵食的通稱이라

59) 陳紀藩: 鹽與豆豉는 食煮餅時用以調味라

그 물로 몸을 씻고, 몸을 씻고 나서는 煮餅을 먹는데 鹽豉를 먹어서는 안 된다.

【考察】

2·3·4條가 百合病을 汗·吐·下함으로써 誤治한 경우인 반면에, 본 條는 百合病이 오래되어 渴症으로 變한 경우를 논하였다. 百合病이 한 달 이상 되도록 낫지 않고 口渴이 나타나는 것은 陰虛 內熱이 비교적 심한 것을 뜻하며 肺의 津液이 輸布되지 않고 胃의 津液이 이미 손상된 것이므로 口渴이 멈추지 않는다.

“一月不解”는 대략적인 말로서 百合病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앓아서 낫지 않은 것이며, “變成渴者”는 원래의 증상이 있는 외에도 口渴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원문에 治方이 ‘百合洗方’이 제시되어 있는데 陳은 “百合地黃湯 한 가지만 쓰면 藥力이 不足하여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內服하는 湯藥을 기초로 하고 다시 百合洗方으로 外治하여 內外를 모두 施治하여 함께 養陰清熱의 효과를 가져온다. 條文 중에 內服方藥을 말하지 않은 것은 省略된 것이다.”⁶⁰⁾고 하였으니 타당하다.

百合洗方에 대하여 李芑은 “熱이 脈中에 잠복되어 있으니 오래되면 津液이 消燬되므로 變하여 渴症이 된다. 煮餅을 먹고 百合을 담근 물에 몸을 씻으면 血脈이 충분히 暢達하여 津液이 流通되어 渴症이 그친다.”⁶¹⁾고 하였으니 百合을 담근 물에 몸을 씻는 것은 肺가 皮毛와 合하는 것을 취한 것이니 外를 씻어 內로 통하게 하여 肺陰을 清養하고 泄熱潤燥의 효과를 취한 것이다.⁶²⁾

몸을 씻은 뒤에 煮餅을 먹는 이유를 陳은 煮餅은 小麥粉으로 만드는데 小麥粉이 益氣生津하여 除熱止渴하기 때문⁶³⁾이라고 하였으나 小麥粉은

6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30.

61) 李芑: 熱伏脈中하니 久則消燬津液 故로 變成渴이라 煮百合洗之 則血脈充暢하여 津液流通而渴止矣라

62)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30.

性質이 熱⁶⁴⁾하므로 百合病이 心肺陰虛內熱인 것을 勘案하면 맞지 않다. 따라서 煮餅은 小麥粉이 아닌 小麥으로 만든 것이리라 타당하다.

또한 鹽豉로 飲食을 調理하지 말라고 한 것은 鹹味가 津液을 消耗시켜 渴症을 增加시키기 때문이니 『素問·宣明五氣篇』에 “鹹味는 血에 작용하니 血病에는 鹹味를 많이 먹어서는 안된다.(鹹走血 血病無多食鹹)”고 하였다.

第 7條 百合病에 渴症이 낮지 않는 경우의 치료

【原文】

百合病이 渴不差⁽¹⁾者는 用後方¹⁾主之라

括蕒牡蠣散方

括蕒根 牡蠣 煨⁽²⁾⁽²⁾ 等分

右爲細末라야 飲服方寸匕⁽³⁾ 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 1) 用後方: 『醫統』·鄧崇文齋本에는 모두 “括蕒牡蠣散”으로 되어 있다.
- 2) 煨 等分: 李本에는 “熬 等分”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差: 病癒, 병나을 차
- (2) 煨: 煨과 같음. 광물성 한약을 300℃ 이상 되는 화로에 넣어서 속까지 벌겍게 되도록 달군 다음 꺼내서 부스러뜨리는 것을 말한다. 광물성 약제에서 結晶水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煨을 하고 나면 유기물질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無機物탄 남게 되므로 치료효능을 높일 수 있고 또 收斂作用이 세진다. (*煨: 蒸也, 불사를 하 *煨: 鍛也, 쇠붙일 단)
- (3) 方寸匕(방촌비): 가루약의 量을 計量할

63)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30.

64)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 619.

수 있게 만들어 쓰던 약순가락의 하나. 네모 1치 되는 약순가락을 말한다. 鑛物性인 경우 一方寸匕는 약 2g 정도이고, 植物性인 경우 一方寸匕는 1g 안팎이다.

【國譯】

百合病에 渴症이 낮지 않는 경우에는 뒤의 處方을 써서 主治한다.

括蕒牡蠣散方

括蕒根 牡蠣 불에 달군 것, 括蕒根과 牡蠣의 量을 같게 한다.

위의 것을 곱게 가루로 내어 方寸匕만큼 飲服하는데,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百合病이 한 달이 지나도록 낮지 않고 渴症이 된 경우에 비록 百合地黃湯을 內服하고 百合洗方을 外用하였으나 口渴이 낮지 않는 것은 熱이 盛하여 津液의 損傷이 비교적 重한 것이기 때문에 앞條의 治法은 病이 重한데 藥은 輕微한 것이어서 效果를 보기 어려우므로 원래의 百合地黃湯에 다시 括蕒牡蠣散을 加하여 淸熱生津의 效果를 增加시킨 것이다.⁶⁵⁾

括蕒牡蠣散에 대하여 李炆은 括蕒根은 生津止渴하여 肺胃의 熱을 식힐 수 있고; 牡蠣는 味는 鹹하고 性은 寒하고 質은 重하여 虛熱을 내려 위로 떠올라 津液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本方은 앞의 百合地黃湯과 合方하여 津液을 生成하여 淸熱하여 口渴을 낮게 한다⁶⁶⁾고 하였다.

第 8條 百合病이 낮지 않고 發熱이 발생한 경우의 치료

【原文】

65)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31.

66) 李炆: 渴不差者는 血虛內熱也니 括蕒根은 能淸熱生津하고 牡蠣는 水族이오 鹹寒入腎經하고 屬腎水라 張元素所謂牡蠣壯水之主以制陽光 則渴飲不思是也라

百合病이 變發熱者¹⁾는 一作發寒熱 百合滑石散主之라

百合滑石散方

百合一兩炙⁽¹⁾ 滑石三兩

右爲散하야 飲服方寸匕^{호대} 日三服이나 當徹⁽²⁾利者는 止服이나 熱則除라

【校勘】

1) 百合病 變發熱者: 『外臺·卷二』에는 “療百合病變發熱者方”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炙: 藥材와 補助材를 동시에 넣고 熱을 가하여 볶거나 구워서 補助材를 藥材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合炒’라고도 한다. 補助材料로는 꿀물, 식초, 술, 소금물, 생강즙, 쌀 씻은 물, 기름, 소젖, 양젖 등을 쓴다.

(2) 徹: 通也, 통할 질.

【國譯】

百合病이 發熱로 변한 경우에는 ‘發寒熱’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百合滑石散으로 主治한다.

百合滑石散方

百合 一兩 구운 것 滑石 三兩

위의 약물을 가루로 내어 方寸匕만큼 하루에 세 번 飲服하되, 泄瀉를 하는 사람은 服用을 하지 않아도 熱이 없어진다.

【考察】

百合病에 惡寒이 있는 것 같으나 惡寒하지 않고 發熱이 있는 것 같으나 熱이 없는(如寒無寒如熱無熱)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진짜 發熱은 결코 없다. 본 條文에 “變發熱者”는 本病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內熱이 오래도록 鬱滯되어 밖으로 肌表에 도달한 것이다. 治法은 清潤心肺하고 泄熱利尿하는 것이 마땅하고 百合滑石散을 사용한다.⁶⁷⁾

李廷은 “內熱로 表로 나와 表熱이 된 것이니 滑石을 사용하여 利小便하여 內熱을 瀉하여 없으면 表熱도 이를 따라 除去되니 이것이 釜底推薪法이다. 또 心은 脈과 合하고 小腸과 表裏가 되니 利小便을 하면 心火를 없앨 수 있다.”⁶⁸⁾고 하여 利小便을 하여 內熱을 除去함으로써 이를 따라 表熱을 치료하였다.

처방의 끝에 “시원하게 泄瀉를 하면 服用을 그친다.(當徹利者 止服)”고 하였는데 百合病은 陰虛하여 清利하는 것을 適用할 수 없으므로 약을 복용한 뒤에 小便이 暢利하여 熱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곧바로 服藥을 그친다.

百合滑石散을 응용한 예로는 林⁶⁹⁾은 生地黃·玉竹·石決明·薏苡仁 등을 加味하여 百合病을 치료하였고, 譚⁷⁰⁾은 知母·滑石·天花粉·牡蠣 등을 加味하여 精神神經症을 치료하였다.

第 9條 百合病의 治療原則

【原文】

百合病이 見於陰⁽¹⁾者는 以陽法救之⁽²⁾라코 見於陽⁽³⁾者는 以陰法救之⁽⁴⁾나 見陽攻陰⁽⁵⁾라코 復發其汗하면 此爲逆⁽⁶⁾이오 見陰攻陽⁽⁷⁾라코 乃復下之면 此亦爲逆⁽¹⁾이라

【校勘】

1) 原文이 『千金·卷十』에는 “論曰 百合病見在於陰而攻其陽 則陰不得解也 復發其汗 爲逆也 見在於陽而攻其陰 則陽不得解也 復下之 其病不愈”로, 『外臺·卷二』에 『小品』을 인용한 것에는 “凡百合病見於陰而以陽法攻之 其陰

67)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 132.

68) 李廷: 由內熱以致表熱이니 用滑石利小便以瀉去內熱 則表熱從此泄去하니 此釜底推薪法也라 又心合脈하고 與小腸爲表裏하니 利小便 即以瀉心火也라

69) 林善星: 二例百合病治驗簡介, 福建中醫醫藥, vol12, p. 14.

70)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56.

不得解也 復發其汗 此爲逆 其病難治 見於陽
而以陰法攻之 其陽不解也 復下之 其病不愈”
로 되어 있다. 『脈經·卷八』의 두 곳의 “爲逆”
의 뒤에 모두 “其病難治”의 녀자가 있다.

【註釋】

- (1) 見於陰: 裏證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⁷¹⁾
- (2) 陽法救之: 救는 治의 뜻이니, 表를 따라 治療하는 方法을 가리킨다.⁷²⁾
- (3) 見於陽: 表證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⁷³⁾
- (4) 陰法救之: 裏를 따라 治療하는 方法을 가리킨다.⁷⁴⁾
- (5) 攻陰: 攻은 治療의 뜻이니 攻下法으로 잘못 治療하는 것을 가리킨다.⁷⁵⁾
- (6) 爲逆: 治法과 病情이 서로 違背되는 것을 뜻한다.⁷⁶⁾
- (7) 攻陽: 汗法으로 잘못 治療하는 것을 가리킨다.⁷⁷⁾

【國譯】

百合病에 裏證이 나타나는 사람은 表를 따라 治療하고, 表證이 나타나는 사람은 裏를 따라 治療하니 表證이 나타나는데 攻下法으로 잘못 治療하고 다시 發汗시키면 이는 逆이 되고, 裏證이 나타나는데 發汗法으로 잘못 治療하고 다시 瀉下시키면 이 또한 逆이 된다.

【考察】

條文의 “陰”과 “陽”의 意味에 대한 제가들의 주

- 71) 李克光: 指表現出裏證이라
- 72) 李克光: 救는 作治療라 … 此處指從表治的方法이라
- 73) 李克光: 指表現出表證이라
- 74) 李克光: 指從裏治的方法이라
- 75) 李克光: 攻은 作治療解라 … 攻陰은 卽誤用攻下法이라
- 76) 李克光: 治法與病情不符라
- 77) 李克光: 指誤用汗法이라

장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陰·陽은 證候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徐彬이 『金匱要略論注』에 “病이 瀉下한 후에 渴症으로 변한 것이 ‘見於陰也’이다. … 病이 發汗·吐法을 사용한 것과 증상이 百合病의 증상과 같고 變하여 發熱이 된 것이 ‘見於陽也’이다.”⁷⁸⁾고 말한 바와 같다. “陽法”은 百合滑石散·栝蠆牡蠣散과 같은 것이고, “陰法”은 百合知母湯·百合鷄子湯과 같은 것이다. 둘째, 陰·陽은 證候의 表와 裏를 分別하여 가리키는 것으로서 “陽法”과 “陰法”은 “從表治”와 “從裏治”를 가리킨다. 唐宗海가 『金匱要略淺注補正』에 “이른바 陰陽은 대부분 表裏를 가리켜 말한다. … ‘見於陰’은 上文에 渴症이 된 것으로 病이 裏部에 있는 것이니 陽法으로써 治療하니 洗方과 같은 것이 表를 따라 治療하는 것이며; ‘見於陽’은 上文에 發熱이 된 것으로 病이 表에 있는 것이니 陰法으로써 治療하니 滑石散과 같은 것이 裏를 따라 治療하는 것이다.”⁷⁹⁾라 한 것과 같다. 셋째, 陰·陽은 陽虛陰盛과 陰虛陽亢을 구분한 것으로서 魏荔澗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 “百合病이 陰에 나타나는 것은 陽은 不足하고 陰은 有餘한 것이다. … 陽에 나타나는 것은 陰은 不足하고 陽은 有餘한 것이다.”⁸⁰⁾라 하였으니, “陽法”은 陽의 不足을 陰과 平衡되게, “陰法”은 “陰의 不足을 陽과 平衡되게 하는 방법이다. 비록 “陰陽”에 대하여 證候의 特性·病邪의 所在部位·病機의 特性 등으로 말한 차이는 있으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第 2章 狐惑病

78) 徐彬: 病在下後 及變渴은 所謂見于陰也라 … 病在汗後及吐後하고 及病形如初하고 及變發熱은 皆所謂見于陽也라

79) 唐宗海: 所謂陰陽은 多指表裏而言이라 … 見于陰은 如上文變成渴而在裏也니 以陽法救之니 如洗方從表治之是오 見于陽은 如上文變成發熱在表也니 以陰法救之니 如滑石散從裏治之是라

80) 魏荔澗: 百合病이 見于陰者는 陽不足而陰有餘也오 … 見于陽者는 陰不足而陽有餘也라

第 10條 狐惑病의 症狀과 惑의 治法

【原文】

狐惑¹⁾之爲病은 狀如傷寒^{하에} 默默欲眠이나 目不得閉^{하고} 臥起不安이라 蝕⁽¹⁾於喉爲惑¹⁾이오 蝕於陰⁽²⁾爲狐니 不欲飲食^{하고} 惡聞食臭^{하미} 其面目乍赤乍黑乍白이라 蝕於上部⁽⁴⁾ 則聲喑⁽⁵⁾하니(一作啞) 甘草瀉心湯主之라

甘草瀉心湯方

甘草四兩 黃芩三兩 人參三兩 乾薑三兩 黃連一兩 大棗十二枚 半夏半斤

右七味^를 水一斗로 煮⁽⁶⁾取六升^{해야} 去滓^{하고} 再煎溫服一升^{후에} 日三服^{이라}

【校勘】

1) 狐惑: 李本에는 “狐蠶”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蝕: 腐蝕, 侵蝕의 뜻이다.⁸¹⁾ (*蝕: 敗創, 다칠 식)
- (2) 陰: 前後의 二陰을 가리킨다.⁸²⁾
- (3) 乍: 忽也, 언뜻 사
- (4) 上部: 喉部를 가리킨다.⁸³⁾
- (5) 聲喑(성갈): 목소리가 막히거나 쉬는 症狀.⁸⁴⁾
- (6) 煮: 藥물을 淸水 또는 液狀의 酢나 藥汁 등의 補助材에 넣어서 조금 끓이고 그 毒性을 弱하게하고 藥物의 純度를 높이는 것. (*煮: 烹也, 다릴 자)

【國譯】

狐惑病의 증상은 傷寒과 같으며 말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하나 잠을 잘 수 없고 누우나 앉아도 不安

하다. 咽喉가 짓무르는 것이 惑이고, 二陰이 짓무르는 것이 狐이니 飲食을 먹으려 하지 않고 밥 냄새를 맡기 싫어하며 얼굴과 눈자위가 갑자기 붉었다가 갑자기 검었다가 갑자기 하얗다. 咽喉가 짓무르면 목소리가 쉬니(어는 책에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甘草瀉心湯으로 主治한다.

甘草瀉心湯方

甘草 四兩 黃芩 三兩 人參 三兩 乾薑 三兩 黃連 一兩 大棗 十二枚 半夏 半斤

위 일곱 가지 약물을 물 一斗로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달여서 一升씩 따뜻하게 服用하되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狐惑病의 原因에 대한 諸家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데 『諸病源候論·傷寒狐惑候』에 “傷寒으로 인하여 變成하여 이 病이 된다. … 이는 모두 濕毒氣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⁸⁵⁾고 한 것을 비롯하여 孫思邈·趙以德·徐彬 등은 “濕熱毒”으로 보았고, 陶華의 『傷寒六書』에 “狐惑과 濕躡은 모두 蟲病이다.”⁸⁶⁾고 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狐惑病을 蟲病으로 보았으나, 丹波元簡의 『金匱玉函要略輯義』는 “蟲이 不安하여 上下로 먹을 것을 찾는다는 말에 이르러서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蝕은 蝕爛의 뜻이니 濕熱이 鬱蒸된 것이 지 蟲이 咽喉와 肛門을 齧먹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⁸⁷⁾라 하였다. 이상의 說을 종합하면 각 醫家들의 견해가 비록 같지 않지만 다만 濕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어 狐惑病의 原因은 濕熱로 思料되며, ‘蟲食上下’의 說은 牽強附會한 점이 있다.

狐惑病의 症狀에 대하여 李炘은 『金匱要略廣注』에 “狐惑은 傷寒病에 熱이 남아서 생기는 것이므로

85) 巢元方 :或因傷寒而變成斯病이라 … 此皆由濕毒氣所爲也라

86) 陶華: 狐惑과 濕躡은 皆蟲病也라

87) 丹波元簡: 至言蟲不得安하여 上下敕食하여는 豈有此理리오 蝕은蝕爛之意니 濕熱鬱蒸所致오 非蟲蝕喉及肛之謂也라

- 81) 李克光: 卽腐蝕이라
- 82) 李克光: 指前後二陰이라
- 83) 李克光: 指喉部라
- 84) 李克光: 說話聲音嘶啞或暗塞不利라

로 症狀이 마치 傷寒과 비슷하다. 默默欲眠은 內熱로 神이 昏迷한 것이니 內經에 蟲이 動하면 사람이 恹心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咽喉와 肛門은 前陰과 더불어 關竅가 通하고 津液이 많아서 축축한 곳이므로 蟲이 늘 이곳을 腐蝕한다. 不欲飲食 惡聞食臭는 內熱로 인하여 胃氣가 不和한 것이므로 目不得閉와 起臥不安의 症狀이 있다. 蟲이 活動하기도 하고 潛伏하기도 하여 일정한 때가 없으므로 面目의 赤·白·黑色도 또한 일정한 색이 없다. 蝕于上部는 곧 咽喉이고, 喝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는 것이다.”⁸⁸⁾라 하였다.

狐惑病의 증상은 口腔咽喉, 前後二陰, 眼球組織, 기타 全身症狀로 분류되는데, 口腔咽喉部位의 증상은 粘膜의 潰瘍이 주된 증상이며, 가벼운 경우 혀바닥(舌底)과 잇몸(齒齦)에서만 발생하지만 심한 경우 咽喉와 혀 전체에 퍼진다. 潰瘍부위의 크기는 쌀알에서 콩만한 크기로서 圓形 또는 불규칙한 모양이며 주변의 경계가 뚜렷하다.

前後二陰部位의 증상은 潰瘍부위의 면적이 크고 깊으며 疼痛이 매우 심하고 後陰과 肛門부위보다는 前陰과 外生殖器부위에 많이 발생된다.

眼球組織의 증상은 초기에는 目赤腫痛하고 빛과 밝은 것을 싫어하는 등 結膜·角膜·鞏膜·虹彩膜睫狀體의 炎症을 수반하는 前房積膿이 위주가 되나, 반복적으로 발작된 뒤에는 脈絡膜·視網膜 炎症 및 眼底出血·水晶体 混濁으로 인하여 視力이 감퇴되거나 심한 경우 失明이 된다.

기타 全身증상으로는 가벼운 경우 식욕이 저하되고 음식냄새를 맡기 싫어하고 腹部脹滿, 便秘 등 消化器系統의 증상이 나타나며, 重한 경우 精神恍惚·默默欲眠·心煩躁擾·精神不安 등 神經系統의 증상이 나타난다.⁸⁹⁾

88) 李昉 : 狐惑은 是傷寒遺熱所致 故로 仍狀如傷寒也라 默默欲眠者는 內熱神昏이니 經에 云蟲動則令人恹心이 是也라 喉肛은 與前陰으로 皆關竅所通하니 津液滋潤之處 故로 蟲每蝕于此라 不欲飲食 惡聞食臭는 是內熱而胃氣不和 故로 有目不得閉 起臥不安之症이라 蟲或動或伏하야 無有定時 故로 面目赤白黑도 亦無定色也라 蝕于上部 卽喉也 喝者는 聲破而啞也라

吳謙은 “狐惑은 牙疳과 下疳 等과 같은 瘡의 옛 이름이니 近來에는 오직 疳證이라 부른다.”⁹⁰⁾고 하였는데 李克光은 “狐惑病은 現代醫學의 ‘眼·口·生殖器三聯綜合徵’, 즉 Behcet's Syndrome과 매우 類似하다. 主要症狀은 口·目·舌·咽喉 및 前後二陰이 潰爛되는 것이다. 臨床에서 甘草瀉心湯에 隨證加減하여 사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⁹¹⁾라고 하여 매우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狐惑病과 Behcet's Syndrome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Behcet's Syndrome을 治療 때 參考할 필요가 있다고 思考된다.

또한 coxsackie virus A16에 의한 전신감염으로 구강의 궤양과 손발의 수포성 병변인 手足口病도 狐惑病의 증상과 유사하므로 手足口病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考된다.

李昉은 “苦味는 熱을 제거하니 黃芩과 黃連의 苦味로써 清熱하고 殺蟲한다. 甘味로써 補하니 人蔘과 甘草와 大棗의 甘味로써 和胃한다. 辛味로써 潤燥하니 半夏와 乾薑의 辛味로써 潤燥하고 和聲한다.”⁹²⁾고 하였다.

甘草瀉心湯의 組成이 半夏瀉心湯과 같으나 다만 甘草가 一兩이 많고 또 生用하는 점이 다르다.

甘草瀉心湯에 加減하여 張⁹³⁾은 慢性泄瀉를 치료할, 張⁹⁴⁾은 藥物過敏을, 吳⁹⁵⁾는 慢性咽喉炎을, 梁⁹⁶⁾은 胃脘痛과 滯瀉와 包皮水腫을, 周⁹⁷⁾

89) 楊思澍·張樹生·傅景華 :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p. 570.

90) 吳謙 : 狐惑은 牙疳下疳等瘡之古名也니 近時惟以疳呼之라

91) 金匱要略 :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 101.

92) 李昉 : 苦以泄之니 芩連之苦以清熱又殺蟲也 甘以補之니 人蔘甘草大棗之甘以和胃也 辛以潤之니 半夏乾薑之辛以潤燥而和聲也라

93) 張常春 : 甘草瀉心湯治療慢性泄瀉21例, 浙江中醫藥雜誌, 1979, vol8, p. 97.

94) 張和曾 : 甘草瀉心湯治療藥物過敏12例, 河南中醫, 1983, vol2, p. 41.

95) 吳孝禮 : 甘草瀉心湯治療慢性咽炎, 四川中醫, 1984, vol1, p. 45.

96) 梁惠光 : 甘草瀉心湯治案三則, 浙江中醫雜誌, 1982, vol5, p. 227.

는 胃虛便秘를, 王⁹⁸⁾은 Behcet's Syndrome을 치료한 예를 보고하였다.

『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에는 上部가 짓무른 경우에는 三黃瀉心湯⁹⁹⁾을 쓰고, 黃連犀角湯¹⁰⁰⁾으로 通治¹⁰¹⁾하였고, 陶華의 『傷寒六書·傷寒明理續論』에는 黃連犀角湯¹⁰²⁾, 桃仁湯¹⁰³⁾, 雄黃銳散¹⁰⁴⁾을 狐惑病에 通用한다¹⁰⁵⁾고 제시하였으며, 『寶鑑』에 處方의 構成이 나와 있다.

第 11條 前陰에 발생된 狐의 治法

【原文】

蝕於下部¹⁾則咽乾이나 苦參湯洗之¹⁾라

苦參湯方

苦參一升

以水一斗³⁾煎取七升⁴⁾去滓⁵⁾熏²⁾洗⁶⁾日

三이라

【校勘】

1) 苦參湯洗之: 『醫統』에는 이 뒤에 “苦參湯方 苦參一升 以水一斗 煎取七升 去滓 煎洗 日三”이 더 있어서 이를 따라 보충하였다.

97) 周南 : 甘草瀉心湯治療胃虛便秘, 北京中醫, 1984, vol1 p. 36.
 98) 王子和 : 狐惑病治療經驗介紹, 中醫雜誌, 1963, vol11, p. 10.
 99) 大黃三錢 黃芩 黃連各一錢半
 李樾: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 大星文化社, 서울, 1981. p. 201.
 100) 黃連一錢半 犀角二錢 烏梅三箇 木香一分
 李樾: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 大星文化社, 서울, 1981. p. 212.
 101) 李樾: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81. pp. 127, 128.
 102) 黃連犀角湯: 黃連 犀角 烏梅 木香 桃仁各一錢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 401.
 103) 桃仁湯: 桃仁 槐子碎 艾葉各二錢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 401.
 104) 雄黃銳散: 雄黃 青箱子 苦參 黃連各二錢 桃仁一錢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 401.
 105) 陶華: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p. 265.

【註釋】

(1) 下部(하부): 前陰을 가리킨다.¹⁰⁶⁾

(2) 熏: 熏法. 外治法의 하나. 藥물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나 藥물을 끓일 때 생기는 증기를 몸에 쏘여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 熏: 火煙上出, 불길오를 훈)

【國譯】

前後의 二陰이 짓무르면 咽乾하니 苦參湯으로 씻는다.

苦參湯方

苦參一升

물 一斗로 七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하루에 세 번씩 증기를 患處에 쏘이고 그 물로 씻는다.

【考察】

狐惑病은 濕熱이 신체의 下部로 내려가 前陰이 潰爛되는 것으로 足厥陰肝經이 陰器를 둘러싸고 위로 咽喉로 循行하기 때문에 前陰에 쌓여있던 濕熱이 經脈을 따라 위로 치밀어 올라 津液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咽喉乾燥가 함께 나타난다. 清熱燥濕解毒하는 藥을 內服하는 동시에 다시 苦參湯으로 前陰部位를 씻어 濕熱邪毒을 없애고, 潰爛되어 腐蝕된 부위가 아물게 하며 咽喉乾燥를 치료하였다.

李炆은 “蟲은 濕熱로 발생되며 苦參은 氣味가 苦寒하니 苦로써 燥濕하고 寒이 能히 熱을 勝하므로 殺蟲한다.”¹⁰⁷⁾고 하였으니 苦參의 燥濕殺蟲의 효능을 취한 것이다.

苦參湯을 이용하여 趙¹⁰⁸⁾는 外陰瘙癢을, 王¹⁰⁹⁾은 陰囊 및 會陰部濕疹을 치료한 예를 보고하였다.

106) 李克光: 這裏指前陰이라

107) 李炆: 凡蟲生于濕熱하며 苦參은 氣味苦寒하니 苦以燥濕하고 寒能勝熱 故로 主殺蟲이라

108) 趙明銳: 經方發揮, 山西人民出版社, 1982, p. 9.

109) 王占塵: 張仲景藥法研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4, p. 559.

第 12條 後陰에 발생된 狐惑의 治法

【原文】

蝕於肛者¹⁾는 雄黃으로 熏之라

雄黃

右一味爲末^{하야} 筒瓦⁽¹⁾二枚合之^{하야} 燒向肛熏之라

脈經에 云 病人이 或從呼吸上蝕其咽^{하고} 或從下焦蝕其肛陰^{라니} 蝕上爲惑^{이오} 蝕下爲狐^{이라} 狐惑病者는 猪苓散主之^{라하니라}

【校勘】

- 1) 蝕於肛者: 『千金·卷十』과 『外臺·卷二』에는 “蝕於肛外者”로 되어 있다.
- 2) 雄黃熏之: 『直解』에는 “雄黃散熏之”로 되어 있다.

【註釋】

- (1) 筒瓦(통와): 대통같이 둥글고 긴 半圓形의 기와.

【國譯】

肛門이 腐蝕된 사람은 雄黃을 태워 그 연기를 쏘인다.

雄黃

雄黃 一味를 가루로 내어 둥글고 길면서 속이 빈 기와 두 개를 합한 안에 넣고 태워서 肛門을 向하게하고서 연기를 쏘인다.

脈經에 환자가 或呼吸을 따라 위로 咽喉가 腐蝕되기도 하고 下焦를 따라 肛門이 腐蝕되기도 하니, 上部가 腐蝕되는 것이 惑이며 下部가 腐蝕되는 것이 狐이다. 狐惑病은 猪苓散으로 主治한다고 하였다.

【考察】

肛門은 狐惑病의 주요 病變部位 가운데 하나로 서 前陰과 마찬가지로 축축한 곳으로 濕熱邪毒의

侵犯을 쉽게 받는다. 병변과정 중에 흔히 後陰의 潰腐가 나타난다.

熏法을 사용하는 까닭에 대하여 李炆은 “前陰과 肛門은 모두 가장 아래에 있어서 藥力이 반드시 여기까지 미칠 수 없으므로 熏洗의 方法을 쓴다.”¹¹⁰⁾고 하였다.

雄黃은 苦寒하여 燥濕解毒할 수 있어 옛사람들은 殺蟲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 煙氣를 患部에 쐬어서 局部的 潰爛을 치료하였다.

『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에는 生艾汁에 雄黃粉末을 섞은 것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熏하는¹¹¹⁾ 治法이 제시되어 있다.

第 13條 狐惑病이 化膿된 경우의 治法

【原文】

病者가 脈數하나 無熱⁽¹⁾微煩 默默但欲臥^{하고} 汗出하며 初得之三四日에 目赤如鳩眼⁽²⁾하고 七八日에 目四眦⁽³⁾(一本엔 此에 有黃字라)黑하며 若能食者는 膿已成也니 赤豆當歸散¹⁾主之라

赤豆當歸散方

赤小豆 三升浸令芽出曝乾 當歸⁽²⁾

右二味를 杵⁽⁴⁾爲散^{하야} 漿水⁽⁵⁾服方寸匕^{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 1) 赤豆當歸散: 『醫統』에는 “赤小豆當歸散”으로 되어 있다.
- 2) 當歸: 『千金·卷十』, 『外臺·卷二』에는 “當歸三兩”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註釋】

- (1) 無熱(무열): 惡寒發熱이 없는 것을 말하

110) 李炆: 陰與肛俱在下極하니 藥力未必到此 故로 用 熏洗之法이라

111) 李樾: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81. p. 128.

는 것으로 表證이 없다는 말과 같다.¹¹²⁾

(2) 鳩眼(구안): 鳩는 새의 이름으로 『說文』에 “鳩 鸛鳩”라 하였고, 속칭 斑鳩라 하며 그 눈동자는 赤色이다. 여기에서는 환자의 눈이 赤色인 것을 비유한다.¹¹³⁾

(3) 四眇(사자): 眇는 眼角이다. 四眇는 양쪽 눈의 內外眇를 가리킨다.¹¹⁴⁾

(4) 杵: 春杵, 공이 저

(5) 漿水(장수): 漿은 酢이다. 『本草綱目』에는 漿水を 酸漿이라고도 하였다. 嘉謨가 말하길 “불을 빼어서 粟米를 익혀서 찬물에 5~6일 담가두면 맛이 시고 白花가 생기며 漿과 비슷한 색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이 방법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漿水는 마시는 것의 總稱이다. 곧 물로 복용한다는 뜻이다.¹¹⁵⁾

【國譯】

患者가 脈은 數하나 熱이 없고 약간의 煩燥症이 있고 말이 없으며 단지 자려고 하고 땀이 나며 病이 발생한지 三·四日에는 비둘기 눈처럼 눈이 붉고, 七·八日에 눈의 네 자위가 (어는 곳에는 여기에 ‘黃’자가 있다.) 검고, 만약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膿이 이미 형성된 것이니 赤豆當歸散으로 主治한다.

赤豆當歸散方

赤小豆(赤小豆 三升을 물에 담가서 싹이 나오게 하여 햇볕에 말린다.) 當歸 三兩

위의 두 가지를 공이로 쪼아서 가루를 만들어 漿水에 方寸匕만큼 복용하되 하루에 세 번 복용

한다.

【考察】

本條의 症狀에 대하여 吳謙은 “病者脈數은 狐惑病을 앓는 사람의 脈이 數한 것을 말한다. 數脈은 瘡證과 熱證이니 밖으로는 身熱이 없으나 안으로 瘡熱이 있으니 瘡證의 熱이 陰에 있으므로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잠만 자려고 한다. 熱이 陽에 있으므로 약간 煩燥症이 나면서 땀이 난다. 그러나 病을 처음 얻은지 三·四日에 비둘기 눈처럼 붉은 것은 熱이 血에 쌓인 것이므로 眇絡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七·八日에 눈의 네 자위가 모두 검게 되는 것은 熱이 血을 瘀滯하여 腐爛시키므로 眇絡이 검게 된다. 만약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그 毒이 오히려 裏部에 潛伏되어 있는 것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그 毒이 이미 膿으로 된 것이다.”¹¹⁶⁾고 하였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써 膿의 有無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하여 尤怡는 “肝과 胃는 서로 勝負가 되는 것이니 肝에 熱이 있으면 반드시 그 熱이 胃를 侵犯하고 肝이 이미 癰을 이루었으면 胃는 곧 그 熱을 肝에 모은다. 그러므로 만약 飲食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膿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고 말하였다.”¹¹⁷⁾고 하여 胃에 있던 熱이 肝으로 모여서 오히려 胃가 和平하기 때문에 飲食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膿이 이루어지는 部位는 原文의 “目赤如鳩眼”. “目四眇黑”으로 미루어 볼 때 眼部가 된다. 또한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에 “下血 先血後便 此

112) 李克光: 謂無寒熱이니 是無表證의 互詞라
 113) 李克光: 鳩는 鳥名이라 『說文』에 “鳩 鸛鳩”하고 俗稱斑鳩니 其目珠色赤이라
 114) 李克光: 四眇는 指兩目內外眇라
 115) 李克光: 漿은 酢也라 『本草綱目』稱 漿水又名酸漿이라 嘉謨云 “炊粟米然하야 投冷水中하야 浸五六日이면 味酸하고 生白花 色類漿 故로 名”이라 此法現已少用이라 一般以漿水爲飲類之總稱이라 卽以水調服之意라

116) 吳謙: 病者脈數은 謂病狐惑之人脈數也라 數主瘡主熱하니 今外無身熱而內有瘡熱하니 瘡之熱在于陰故로 默默但欲臥也라 熱在于陽 故로 微煩汗出也라 然이나 其病初得之三四日에 目赤如鳩眼者는 是熱蘊于血 故로 眇絡赤也오 七八日에 四眇皆黑者는 是熱瘀血腐 故로 眇絡黑也라 若不能食이면 其毒尙伏諸裏나 若能食이면 其毒已化成膿也라
 117) 尤怡: 夫肝與胃는 互爲勝負者也니 肝方有熱이면 勢必以其熱侵及于胃하고 而肝既成癰이면 胃卽以其熱并之于肝이라 故로 曰 若能食者는 知膿已成也라

近血也 赤小豆當歸散主之”라 한 것으로 볼 때 大腸下端의 肛門에서도 膿이 생길 수 있다. 비록 眼部와 肛門의 部位의 차이가 있으나 成膿하는 機轉이 같기 때문에 滲濕清熱하고 解毒活血排膿하기 위하여 赤小豆當歸散을 사용하였다.

李炫은 “當歸는 惡瘡을 치료하고 和血한다. 赤小豆는 心の穀食이며 赤色이어서 血分에 들어가고 그 性質이 下行하여 散血排膿한다.”¹¹⁸⁾고 하였으며, 尤怡는 本方을 “排膿血하고 除濕하는 良劑이다.”고 하였다.

赤小豆當歸散을 사용하여 張¹¹⁹⁾은 本方에 敗醬·大黃을 加味하여 前立腺肥大를, 洪¹²⁰⁾은 連翹·升麻를 加味하여 便血을, 彭¹²¹⁾은 丹參·薏苡仁·桑枝 등을 加味하여 痺證을, 金銀花·敗醬 등을 加味하여 赤白帶下를, 醫¹²²⁾는 土茯苓·忍冬藤·生地黃 등을 加味하여 隱疹을 치료한 예를 報告하였다.

第 3章 陰陽毒

第 14條 陰陽毒의 證治 및 預後

【原文】

陽毒⁽¹⁾之爲病은 面赤斑斑⁽²⁾如錦文⁽³⁾하고 咽喉痛하며 唾膿血하니 五日은 可治나 七日은 不可治나 升麻鱉甲湯主之¹⁾라

陰毒⁽⁴⁾之爲病은 面目青⁽⁵⁾하며 身痛如被杖⁽⁵⁾하고 咽喉痛하니 五日은 可治나 七日은 不可治나 升麻鱉甲湯에 去雄黃蜀椒主之²⁾라

升麻鱉甲湯方

118) 李炫: 當歸는 治惡瘡而和血이오 赤豆는 心之穀也며 色赤하여 入血分하고 其性下行하여 主散血排膿이라

119) 張天蘭 等: 赤小豆當歸散治療前列腺肥大, 中醫藥研究, 1990, vol6, p. 5.

120) 洪德華: 加味赤小豆當歸湯治療近血體會, 浙江中醫雜誌, 1990, vol2, p. 61.

121) 彭述憲: 赤小豆當歸散臨床應用, 湖南中醫雜誌, 1993, vol3, p. 7.

122) 醫民華: 赤小豆當歸散加味治愈隱疹一例, 江西中醫藥, 1984, vol3, p. 55.

升麻二兩 當歸一兩 蜀椒炒去汗⁽⁶⁾一兩 甘草二兩 雄黃半兩研 鱉甲手指大一片炙

右六味를 以水四升으로 煮取一升하여 頓服⁽⁷⁾之라 老小再服하고 取汗이라

肘後 千金方엔 陽毒엔 用升麻湯호대 無鱉甲하고 有桂오 陰毒엔 用甘草湯호대 無雄黃이라

【校勘】

1) 陽毒之爲病 … 升麻鱉甲湯主之: 『脈經·卷九 平陽毒陰毒百合狐惑脈證第三』에는 “陽毒爲病 身重 腰背痛 煩悶不安 狂言 或走 或見鬼 或吐血下痢 其脈浮大數 面赤斑斑如錦文 咽喉痛 唾膿血 五日可治 至七日不可治也 有傷寒一二日 便成陽毒 或服藥 吐下後成陽毒 升麻湯主之”로 되어 있다.

2) 陰毒之爲病 … 升麻鱉甲湯 去雄黃蜀椒主之: 『脈經·卷九 平陽毒陰毒百合狐惑脈證第三』에는 “陰毒爲病 身重背強 腹中絞痛 咽喉不利 毒氣攻心 心下堅強 短氣不得息 嘔逆 唇青面黑 四肢厥冷 其脈沈細緊數 身如被打 五六日可治 至七日不可治也 或傷寒初病一二日 便結成陰毒 或服藥六七日以上至十日 便成陰毒 甘草湯主之”로 되어 있다.

【註釋】

(1) 陽毒(양독): 邪氣가 血分에 침범하여 熱이 甚하고 面赤한 것이다.¹²³⁾

(2) 斑斑(반반): 얼룩무늬가 있는 모양.

(3) 錦文(금문): 織物의 꽃무늬. 여기서는 얼굴의 斑色을 형용한다. 얼굴이 마치 비단의 꽃무늬와 같은 것을 형용한다.¹²⁴⁾

(4) 陰毒(음독): 邪氣가 血脈에 침범하여 血脈이 막혀서 面靑한 것이다.¹²⁵⁾

(5) 身痛如被杖(신통여피杖): 杖은 棍棒이다.

123) 李克光: 邪氣侵犯血分熱甚 面赤者라

124) 李克光: 形容面部如織錦上面的花紋이라

125) 李克光: 邪氣侵犯血脈凝滯 面靑者라

신체가 마치 곤봉으로 맞은 것처럼 아픈 것을 형용한다.¹²⁶⁾

(6) 去汗(거한): 去油, 去水를 가리킨다. 蜀椒를 볶아서 기름과 물기를 없애는 것을 가리킨다.¹²⁷⁾

(7) 頓服(돈복): 많은 量의 약을 단번에 먹는 것. 病邪가 下部에 있을 때 또는 病邪가 下部에는 없으나 危險한 경우에 사용한다.

【國譯】

陽毒의 症狀은 顔色이 붉으면서 비단무늬처럼 붉은 斑點이 생기고 咽喉痛하며 唾液에 膿血이 섞이니 五日된 것은 치료할 수 있으나 七日이 된 것은 치료할 수 없다. 升麻鳖甲湯으로 主治한다.

陰毒의 症狀은 顔面과 눈자위가 푸르며 멍둥이에 맞은 것처럼 아프고 咽喉痛하니 五日이 된 것은 치료할 수 있으나 七日이 된 것은 치료할 수 없다. 升麻鳖甲湯에서 雄黃과 蜀椒를 빼고서 主治한다.

升麻鳖甲湯方

升麻 二兩 當歸 一兩 蜀椒(볶아서 기름을 뺀 것) 一兩 甘草 二兩 雄黃 半兩(같은 것) 鳖甲 손가락 크기의 한 조각(구운 것)

위의 여섯 가지를 물 四升으로 一升이 되도록 달여서 단번에 복용한다. 老人과 어린이는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고 땀을 낸다.

(肘後備急方과 千金方에는 陽毒에 升麻湯을 사용하는데 鳖甲이 없고 桂心이 있으며; 陰毒에 甘草湯을 사용하는데 雄黃이 없다.)

【考察】

일반적으로 陰陽毒病은 疫毒이 侵犯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趙以德은 “이 陰陽二毒은 天地의 疫癘와 季節에 맞지 않는 非正常的한 氣가 侵入한 것이다”¹²⁸⁾라 하였고, 尤怡는 “毒은

邪氣가 쌓이고 맺혀서 풀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¹²⁹⁾고 하였으니 陰陽毒은 疫癘와 계절에 맞지 않는 非正常的인 氣候로 발생된 邪氣가 侵犯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唐宗海는 “或者가 陰陽毒은 지금의 瘟疫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處方과 證을 자세하게 보건대 또한 瘟疫과 差異가 있으니 지금의 瘟疫은 陰陽毒보다 더욱 甚한 것이다.”¹³⁰⁾고 하여 陰陽毒은 瘟疫이 비교적 輕微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에 陰陽毒에 대하여 “三陰經의 病이 깊게 되면 반드시 變하여 陰毒이 된다. 처음 證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寒涼한 藥을 誤服하였거나 或은 吐下한 뒤에 變하여 되기도 한다. 대개 房勞로 腎이 損傷되고 生冷한 飲食으로 脾가 損傷되어 體內에는 이미 陰氣가 잠복되었고 밖으로는 또한 寒氣가 侵入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體內와 體外에 모두 陰이므로 陽氣가 갑자기 끊어졌기 때문이다. … 三陽經의 病이 깊게 되면 반드시 變하여 陽毒이 된다. 처음 病에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吐下로 잘못 치료하여 생기기도 하니 흔히 지나친 飲酒와 밀가루음식이나 燥熱한 金石類의 藥을 濫用하여 腸胃를 손상시켜서 발생하기도 또 病證이 陽明證에 溫熱한 藥을 잘못 投與하여 熱을 助長하여 病邪가 되기도 하니 體內와 體外가 모두 陽熱로 損傷되어 陰氣가 갑자기 끊어지기 때문이다.”¹³¹⁾고 하여 과도한 房勞·生冷한 飲食·酒麪·金石藥 등의 原因으로 體內의 陰氣와 陽氣가 끊어

129) 尤怡: 毒者는 邪氣纏結不解之謂라
130) 唐宗海: 或謂陰陽毒은 卽今之瘟疫이라 然이나 細觀方證컨대 又與瘟疫有異하니 今之瘟疫은 則更甚於陰陽毒이라
131) 李樾: 三陰病深하면 必變爲陰毒이라 有初證에 遽然而成者하고 有誤服寒藥하며 或吐下後에 變而成者하니 蓋以房勞로 損腎하고 生冷으로 傷脾하야 內已伏陰하고 外又感寒하야 致之니 內外에 皆陰하야 陽氣暴絶故耳라 … 三陽病深하면 必變陽毒이니 有初病에 遽然而成者하고 有經吐下하야 變而成者라 多因酒麪金石의 僭燥하야 腸胃極烈所致오 又或證屬陽明을 誤投溫藥으로 助熱爲邪하야 內外皆傷하야 陰氣暴絶故耳라

126) 李克光: 形容身如受木棍樹杖打擊一樣疼痛이라
127) 李克光: 此處指蜀椒炒去油去水라
128) 趙以德: 此陰陽二毒은 是感天地疫癘非常之氣라

진 상태에서 外部의 疫毒이 침범하여 발생된다고 하였다.

陰陽毒의 病機에 대하여 魏荔澗은 血에 熱이 蓄積되어 발생하는¹³²⁾ 것으로 보았으며, 曹家達은 “邪氣가 人體에 侵犯하여 血熱이 熾盛한 것이 陽毒이 되고, 血寒하여 凝澁한 것이 陰毒이 된다.”¹³³⁾고 하여 陰毒과 陽毒으로 나누어 病機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陽毒은 陽盛한 證이니 熱이 上部에서 鬱結된 것이므로 面赤斑斑如錦紋하고 熱이 肺胃를 損傷시키므로 吐膿血하며; 陰毒은 寒이 凝結된 證이니 血이 凝結되어 死血의 色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面目靑하고 血이 肌肉에 凝結되므로 身痛如被杖하며; 陰毒과 陽毒 二證에 모두 咽痛한 것은 陽熱이 薰灼하는 것이므로 痛症이 있는 것이고 陰寒이 凝阻하는 것이므로 또한 咽痛하게 된다.”¹³⁴⁾고 하여 症狀을 理解하였다.

역대의 醫家들이 陰毒을 보는 觀點이 많이 다른데 陳¹³⁵⁾은 증상이 뚜렷한 것을 陽毒, 그렇지 않은 것을 陰毒으로 구분하였으나, 李¹³⁶⁾는 面靑을 陰毒, 面赤을 陽毒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에는 陰毒은 冷汗이 있고, 陽毒은 無汗하다¹³⁷⁾고 하였다.

陽毒과 陰毒의 예후에 대하여 仲景은 “五日可治 七日不可治”라 하여 早期治療을 하여야 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후가 나쁘다고 강조하였다. 病이 疫毒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變化가

비교적 빠르고 또한 영향이 營血에 미치기 때문에 早期에 治療을 해야 邪氣를 몰아낼 수 있으나 만약 잘못 치료하여 時期를 놓치면 邪氣가 깊고 病이 重하여 마침내 “不可治”에 이르게 된다. “五日”, “七日”의 숫자에 반드시 구해질 필요가 없고 모두 初期에 治療하는 것이 중요하다.

陽毒을 治療하는 升麻鱉甲湯에 대하여 李炆은 “熱毒이 胃에 모여 있으므로 胃經으로 들어가는 升麻를 사용하여 解毒하고, 鱉甲과 當歸는 養陰和血하고, 雄黃은 解毒散瘀하고, 甘草는 甘味로써 緩하고 瀉하니 解毒止痛하고 吐膿血하는 聖藥이 되고, 蜀椒는 辛溫하고 熱氣를 이끌어 下行할 수 있어서 陽毒을 治療하는데 사용한다.”¹³⁸⁾고 하였다.

陰毒을 治療함에 升麻鱉甲湯에 雄黃과 蜀椒를 빼고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李炆은 “雄黃과 蜀椒를 뺀 것은 吐膿血을 하지 않기 때문에 雄黃의 散瘀血하는 것을 취하지 않은 것이고, 또 身痛이 表에 있으니 또한 蜀椒의 溫中하는 作用을 取하지 않았을 뿐이다.”¹³⁹⁾고 하여 陽毒에 비하여 陰毒은 吐膿血하지 않고, 身痛의 原因이 表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脈經·卷八』, 『外臺·卷一』, 『千金·卷九』에는 모두 陽毒에는 “升麻湯”을, 陰毒에는 “甘草湯”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升麻鱉甲湯에 加減하여 何¹⁴⁰⁾는 血小板減少性 紫癜을, 譚¹⁴¹⁾은 本方에 雄黃·蜀椒를 去하고 金銀花·生地黃·牡丹皮·赤芍藥·桔梗·甘草를 加味하여 猩紅熱을, 鄒¹⁴²⁾는 金銀花를 加味하여 紅斑狼瘡을,

132) 魏荔澗: 陰陽毒之爲病은 血病也라 血何以爲毒오 蓄熱而毒生也라

133) 曹家達: 邪之中人에 血熱熾盛爲陽이오 血寒凝澁爲陰이라

134) 曹家達: 陽毒은 爲陽盛之證이니 熱鬱於上 故로 面赤斑斑如錦紋하고 熱傷肺胃 故로 吐膿血이오 陰毒은 爲凝澁之證이니 血凝而見死血之色 故로 面目靑하고 血凝於肌肉 故로 身痛如被杖이오 二證皆咽痛者는 陽熱薰灼固痛하고 陰寒凝阻亦痛이라

135) 金匱要略: 陳紀藩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 141.

136) 金匱要略: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 110.

137) 李樾: 醫學入門·外集卷一 傷寒用藥賦, 大星文化社, 서울, 1981, pp. 135, 136.

138) 李炆: 熱毒聚胃 故로 用升麻入胃經以解毒이오 鱉甲當歸는 養陰和血이오 雄黃은 解毒散瘀이오 甘草는 甘以緩之瀉之니 爲解毒止痛吐膿血之聖藥이오 蜀椒는 辛溫하고 能引熱氣下行하야 用治陽毒이라

139) 李炆: 去雄黃蜀椒者는 以其不吐膿血 則無取雄黃之散瘀血이오 且身痛在表하니 亦無取蜀椒之溫中耳라

140) 何任: 金匱要略淺釋, 浙江中醫學院學報, 1978, vol4, p. 60.

141)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人民衛生出版社, 1981, vol9, p. 62.

142) 鄒學熹: 懷念吳摺仙老師, 成都中醫學院學報, 1982, vol3.

謝143)는 本方을 加減하여 幽門梗阻·慢性扁桃腺腫大·子宮肌瘤를 치료한 예를 報告하였다.

IV. 總括 및 結語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第三」은 百合病·狐惑病·陰陽毒 세 가지의 原因·症狀·治方에 대하여 논술한 것으로, 세 病證이 비록 각각의 特徵이 있으나 發病이 모두 外感熱病과 관련이 있고 또한 症狀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한편으로 습하였다.

百合·狐惑·陰陽毒은 外感熱病과 관련이 있는데, 百合은 傷寒을 잘못 치료하여 인체의 營衛氣血이 極度로 衰弱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精神神經症(psychoneurosis)과 유사하며, 狐惑은 현대의 Behcet's Syndrome, 手足口病 등과 類似한데 Behcet's Syndrome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HLA-B5와 HLA-B51과의 연관성이 있는 면역계질환이며, 手足口病은 coxsackie virus A16에 의한 것이지만 체내의 저항력이 저하될 경우 virus가 쉽게 침범할 수 있고, 陰陽毒에 사용한 升麻鳖甲湯에 加減하여 血小板減少性紫癍·猩紅熱·紅斑狼瘡 등을 치료한 것을 보면 陰陽毒 역시 virus와 관련이 있고 또한 신체의 抵抗力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百合·狐惑·陰陽毒 세 病證은 人體의 營衛氣血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virus가 침범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百合病은 대개 熱病 뒤 혹은 情志不遂로 말미암아 心·肺가 陰虛內熱하여 全身의 脈이 調和를 잃은 것으로 발생된다. 증상은 精神恍惚不定하고 言語·行動·飲食·感覺에 異常이 발생하며, 口苦·小便赤·脈微數이 주된 특징이다. 治法은 養陰清熱하고 滋養心肺하는 것이 原則으로서 百合地黃湯이 주된 處方이다. 百合病을 汗吐下로써 誤治하였을 경우에는 百合知母湯·滑石代赭湯·百合鷄子湯을 選

別하여 사용하고, 百合病이 낫지 않고 오래되어 渴症으로 변하였을 때에는 百合洗方과 栝蒌牡蠣散을; 發熱로 변하였을 때에는 百合滑石散을 사용한다.

狐惑病은 濕熱로 인하여 발생되며, 咽喉와 前後의 二陰이 潰爛되며 目赤이 주된 특징이며, 治法은 清熱除濕解毒이 原則이며, 甘草瀉心湯과 赤小豆當歸散을 內服하고, 苦參湯과 雄黃熏의 外治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陰陽毒은 疫毒을 받아서 발생하며 發斑과 咽喉痛이 주된 특징이다. 症狀으로 볼 때 面赤한 것을 陽毒, 面靑한 것을 陰毒으로 구분하지만 治法은 모두 清熱解毒하고 活血化瘀하는 것이 원칙이며; 陽毒에는 升麻鳖甲湯을 사용하고, 陰毒에는 升麻鳖甲湯에 雄黃과 蜀椒를 빼고서 사용한다.

參考文獻

1.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2. 魏荔澗: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3.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5.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綜合出版社, 台南, 1990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7.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 臺北, 2003.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11.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板,

143) 謝新陽: 升麻鳖甲湯臨床驗案集錄, 國醫論壇, 1991, vol. p. 15.

- 1981.
12. 巢元方 著·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13.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15. 王氷: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6. 王焘: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7.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18.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1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20. 朱肱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21.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2.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23. 中醫辭海·上: 吳大眞 總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24. 李彭: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25. 陶華: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6.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27.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28. 趙以德·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金匱玉函經二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29.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30.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5. 中國語人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人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7.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9.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10.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 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11.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參考辭典

1.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2.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2001.